



말씀나눔

인도자

셋째, 감사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5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감사의 근거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 자녀의 성공,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이 감사의 근거가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것들이 흔들리면 우리의 감사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대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들판의 곡식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죄로 인해 그분을 떠났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추석상 위에 오른 그 어떤 음식보다 크고 깊은,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진짜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추석, 가족들과 둘러앉은 그 밥상에서 우리의 감사가 곡식과 열매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그 감사로 이번 한가위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 송

305장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2026 추석가정예배

세 계 로 교 회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묵상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아 이 가정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우리 앞길을 지켜 주시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찬 송

435장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대표기도

가족중

한 해 동안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인도자

시편 100편

- 1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2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 3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4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5여호와를 찬양하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나눔

인도자

가을 들녘에 나락이 익어가고, 잘 익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과수원, 고향으로 향하는 길게 늘어진 자동차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둘러앉은 밥상. 우리는 또 한 번의 추석을 맞이합니다. 일 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앞에 놓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시편 100편은 짧지만 강렬한 찬양시입니다. 다섯 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시는 온 땅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이 추석 아침, 이 짧은 시편을 통해 우리가 드러야 할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풍성한 수확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는 곡식과 과일을 보며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곡식과 과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씨앗을 심은 것은 사람이지만,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감사는 알아집니다. 결과물에만 감사하고 그 결과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에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온 땅에게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라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감사는 마지못해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닙니다. 즐거움과 노래가 넘치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절 밥상에 앉아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해 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 채워지지 않은 기대, 비교하게 되는 형편들이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시편 100편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이 완벽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